

판타지의 문학적 '복권' 꾀한 비평집

《판타지 동화 세계》 펴낸 이재복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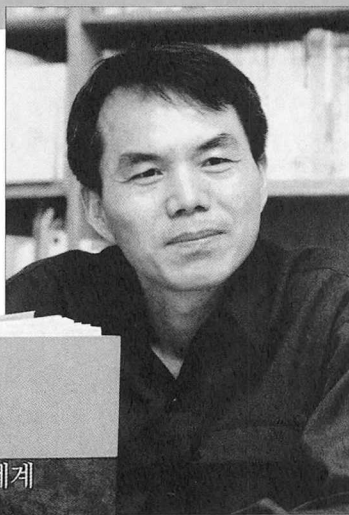
국내 아동문학계에서 판타지 동화는 도피의 문학쯤으로 오해받아왔다. 하지만 아동문학 평론가 이재복씨는 판타지 문학이 오히려 현실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문학이라고 변론한다. 그가 보기에 판타지 문학은 어린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내는 위안의 문학이다. 그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건강한 모습을 작가들이 담아내기를 바란다.

국내 아동문학계에서 판타지 동화는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아왔다. 판타지는 아이들의 삶에서 떠난 공허한 이야기라는 '누명'을 뒤집어 써온 것이다. 하지만 아동문학평론가 이재복씨(44. 월간 《어린이 문학》 편집장)는 이런 고정관념에 저항한다. 그가 펴낸 《판타지 동화 세계》(사계절)는 국내의 판타지 동화를 분석하면서 판타지의 문학적 복권을 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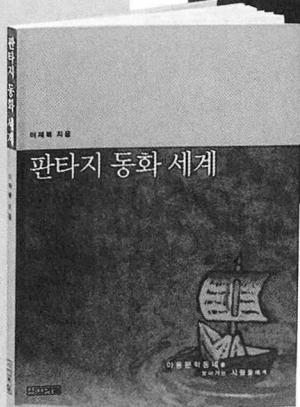
“동화는 크게 사실동화와 판타지 동화로 나뉩니다. 국내 아동문단에서는 사실동화가 주류고 판타지 동화는 변방으로 밀려나버렸죠. 판타지 동화가 현실도피 문학이라는 오해가 뿌리깊기도 했지만, 전범이 될 만한 작품이 생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판타지를 하나의 문학장르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진실 회복하는 위안의 문학

그가 판타지 동화 연구에 발길을 내딛게 된 것은 5년 전이다. 첫 책 《우리 동화 바로 읽기》(한길사)를 펴낸 후 이원수의 《숲 속 나라》(웅진닷컴)를 읽다가 판타지 문학의 가능성에 눈뜨다. 하지만 막상 판타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미답지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국내 연구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서양에서도 몇 권의 이론서만 나와 있을 뿐이었다.



이재복씨



사계절/A5신/224면/7500원

이 책은 지난 5년 동안 황무지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판타지 문학과 씨름해온 이씨의 문학적 고뇌가 응축돼 있다. 권

정생의 《밤데기 죽데기》(바오로딸), 이현주의 《바보 온달》(새벗),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김경희, 창작과비평사) 등의 작품을 통해 판타지 문학의 개념과 구조를 정리한다. 이씨는 판타지 동화가 위안의 문학이라고 정의한다.

“판타지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잃어버린 진실을 회복시켜주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판타지 동화의 주인공은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시공간 속에 들어가 긴 고난의 과정(통과의례)을 거치면서 구원받습니다.”

판타지가 위안의 문학이라고 할지라도 엄밀

한 문학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저 위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작가가 만들어놓은 판타지 공간이 얼마나 진실한 내적 조화를 갖춘 공간이냐에 따라 판타지 문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이씨는 강조한다. 또한 판타지가 현실의 또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판타지 문학은 오늘 우리 삶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역사에 대한 치열한 작가정신이 담겨 있지 못하면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남기 힘들죠.”

그가 생활동화에 비판적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생활동화란 아이들에게 날것 그대로의 교훈을 드러내는 문학이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덕관념 속에 아이들을 가둘 우려가 크다. 이씨가 강소천의 동화 《나는 겁쟁이다》(신구미디어)를 비판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이 동화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기를 꿈꾸는 아이들의 세계를 그렸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원수·이현주·권정생 등의 동화는 높이 평가한다.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지 않고 역사와 현실에 밀착된 세계를 그렸기 때문이다. 이들 작가는 어두운 삶의 조건에 내던져진 아이들이 현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건강한 정신을 담아냈던 것이다. 이씨가 작가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치열한 작가정신 요구돼

“판타지 문학의 옥석을 가리는 비평의 잣대는 작가의 정신세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판타지는 잘못된 정신을 그럴 듯하게 포장할 위험성이 크죠. 따라서 역사와 현실을 보는 올바른 시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씨가 보기에 요즘 아동문학 시장은 양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문학의 논리가 출판과 자본의 논리 사이에서 희생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시대일수록 작가는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 박천홍 기자